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8일(월) 총 3매	변영환 ☎440-4211 허정규 ☎440-4212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 인천e음운영담당 • 담당자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1석 3조 “e음택시” 시동 걸었다.

- 지역화폐 플랫폼 활용한 택시 호출서비스, 11월 8일 서비스 개시 -
- 인천시민 e음택시 이용 서비스 편의제공, 캐시백 10% 지원 -
- 택시업계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1.2% ~ 1.4%, 콜비용, 멤버십비용 없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공공형 택시플랫폼 “e음택시” 사업이 출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감소, 근로자 이직율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부담경감 및 시민들의 편리한 택시 호출 통합서비스 도입 필요성 증대에 따라 “e음택시” 서비스를 11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음택시”란 지역화폐 플랫폼(인천e음) 기반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말하며,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으로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인천e음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인천e음 메인화면에 있는 ‘e음택시’ 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캐시백 1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e음택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현 운영대행사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다음 운영대행사 변경 시까지이다. 연말 진행할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 시 인천e음 부가서비스에 택시 호출서비스를 포함해 2단계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음택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택시업계 독과점에 따라 도입된 공공형 택시플랫폼이다.

카카오T의 경우, 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가맹택시는 월매출의 3.3%, 비가맹택시는 월 39천원의 멤버십 이용료와 승객에게 콜비용까지 부담시키는데 반해, “e음택시”는 결제수수료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1.2%~1.4%) 콜비용과 멤버십 이용료 등의 기타 비용이 없어서 택시사업자와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e음택시는 민간택시 호출앱 대비 수수료는 내리고 캐시백을 통한 사용자 혜택은 올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e음택시와 같은 시민 친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e음이 국가대표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붙임> 1. e음택시 BI
 2. e음택시 호출 흐름도
- <별첨> 1. e음택시 사진

< e음택시 BI >



< e음택시 호출 흐름도 >



- 인천e음 고객은 앱 접속후 택시호출서비스 약관만 동의하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고객서비스 : 인천e음 앱 내에서 이용
 - 기사님서비스 : 별도의 기사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